



3면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유출 막는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음 12월 23일) 제343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오가노이드 및 배양인공혈액 분야 선도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레드진' 투자 협약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박갑주 레드진 대표,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박갑주 레드진 대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김관영 지사 “도민 참여 특례 발굴로 희망 만들자”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철저 등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상 홍보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주·전북특별자치도 7개 권역을 돌며,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민보고회를 통해 많은 희망과 발전의 의지를 느낀다. 현장에서 도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도정과 특례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설 명절이 1주일 뒤로 다가왔음을 언급하며,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를 넘어 제대로 속도감 있게 실천돼야 한다.”면서, “많은 도민이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실국이 꼼꼼하게 명절대책을 실행해 줄 것”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사태를 잘

속지하고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5일 해수부가 발표한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언급하며, 김·굴·전복·넙치 4대 수산물 분야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기업, 농수산대학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산업의 생산·유통·소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중기부의 2024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사업 관련 전북자치도가 지정된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 분야 등 기업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추진의 속도를 더 높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부가 10일 발표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 통계’를 언급하며, “청년세대 활동이 활발한 유튜브 등 ‘창작자 경제(디지털 크리에이터) 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전국 평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국 평균이 41.5%를 넘었고, 전북자치도가 45%로 1인 가구 비중은 더 높은 것을 강조하며, 1인 가구의 △건강 △안전 △경제 △고립 △부동산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며 1인 가구 돌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 최상위 기업 2곳 ‘전북행’

국내 바이오업계에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전북에 둠지를 틀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국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맺은 바이오 기업들이 각각 전주와 익산, 정읍을 거점으로 전북자치도의 청사진인 ‘바이오 트라이앵글’이 형성될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박갑주 레드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사는 세포를 배양 또는 재조합해 장기 유사체를 만드는 기술인 오가노이드 분야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 앵커기업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기술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오가노이드사이언스·레드진, 전북자치도 등과 투자협약

원광대 내 연구실 세우 연구기관과 레드바이오 사업 추진 전주·익산·정읍 등 거점으로 ‘바이오 트라이앵글’ 형성

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광명에 대규모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을 개소, 조기 임상에 진입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이날 함께 투자협약을 맺은 레드진은 자체 기술로 인간과 반려동물의 세포 기반 배양적혈구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유전자 교정 기술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치료 및 수혈용 배양 적혈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드진 연구개발에는 유전자 관련 대표 기업인 돌젠을 설립한 바 있는 김진수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레드진은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레드

바이오 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자협약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면 2025년에는 대규모(1,500~3,000평) 실험 및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으로 전주(전북대학교)-넥스트앤바이오, 익산(원광대학교)-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레드진, 정읍-바이오메인과 에이치엘비제약 등 3개 지역의 사업추진 체계가 갖춰져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병원과 연구기관들의 축적된 임상연구 노하우에 더해, 관련 기업들의 연구·제조기술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향후 대규모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각 3개 기초단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임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임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0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고창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겨울(선운사, 동림저수지)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